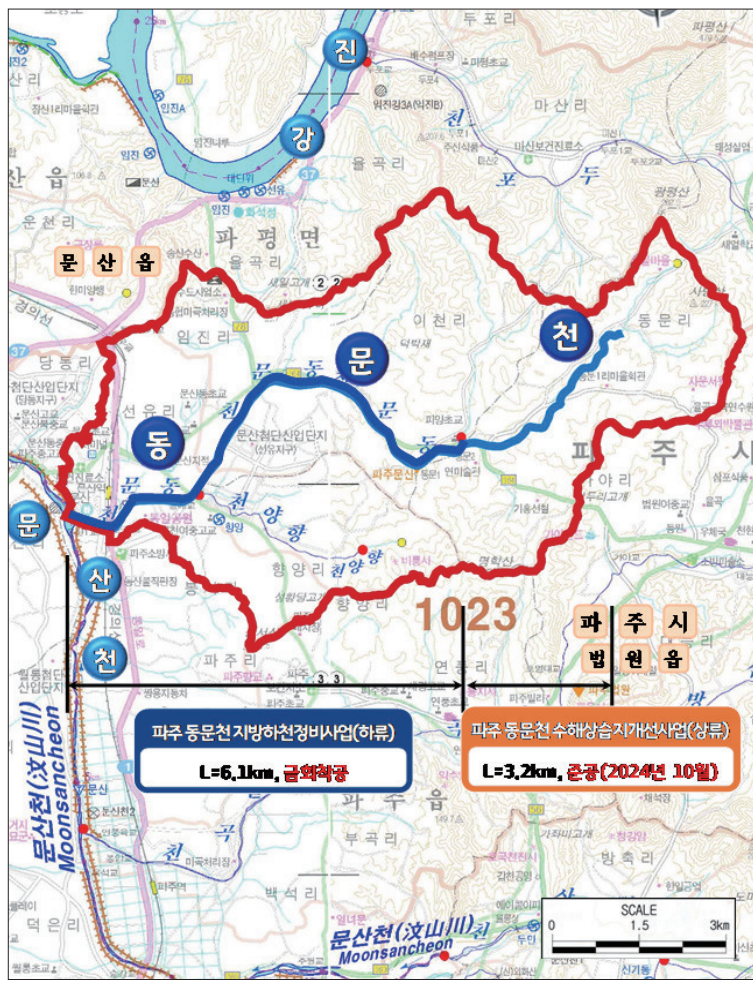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 동문천 6.1km 정비 착공



▲파주 동문천위치도(경기도청제공)

경기도가 파주시 동문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정비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범원읍 동문리에 이르는 동문천 일원 총 연장 6.1km 구

지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동문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10월 착공... 3년 간 추진 도비 100%로 안전한 하천 조성

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6.1km ▲보축(제방 보수·보강)2.4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484억 원으로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문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4년 실시계획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16년 설계 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0년 10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2025년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 완공 시 지난 2024년 준공한 동문천 상류 3.2km 구간을 포함하여 동문천 전체 구간 9.3km에 대한 치수 능력과 안정성을 높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보령시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힐링 마을투어 실시

외출 어려운 어르신들께 활력과 행복 선사

보령시 천북면(면장 임인환)은 10월 28일 외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 21명을 대상으로 '힐링 마을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대열) 위원과 면 직원 등 총 35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일정은 예산군 상설시장과 예당호, 덕산 죽육 체험,

카페 방문 등 여유로운 관광 코스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휴식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보조하며 이동 시 보행을 지원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돌봄을 실천했다.

임인환 천북면장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이번 나들이가 어르신들의 삶에 작지만 큰 행복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열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취약계층어르신위한힐링마을투어(보령시청제공)

고흥군, 벼짚 환원사업으로 유기농업 확산 견인

벼짚 환원으로 토양건강 회복

고흥군이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벼짚을 논으로 환원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 벼짚 환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벼짚에는 유기물과 규산,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환원 시 토양 지력 증진과 벼 생육 개선, 병해충 발생 억제 및 도복 피

해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벼짚을 사료로 활용하는 농가가 늘면서 논으로 돌아가는 유기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 산성화 및 비료 의존도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벼짚 환원을 통해 토양 생태 균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벼짚 환원은 토양 유

기물 함량을 높여 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 저감에 도움을 줌으로써 '깨씨무늬병' 등 주요 병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유기전환 중이거나 유기인증 농지 약 825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가에는 1ha당 22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군은 벼짚 환원 기술 교육과 현장 지도를 병행해 효과적인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천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안내

김천시는 농촌진흥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

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업인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과수, 채소, 식량, 특용작물 등 42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 11종과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 15종을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 우수 운영 사례 집중 조명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스마트팜사관학교 방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충남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대전·세종시와 도내 시군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당진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충남권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협의회의에 참석한 뒤, 당진의 주요 농업기술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기관장들은 먼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내 '종자은행'을 둘러보며, 지역 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종자 생산·공급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진 종자은행은 주요 작물의 우량종자를 수집·보존·보급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특히 자체 운영하는 19.7ha 규모의 채종포에서 생산한 벼 종자를 정선·보관한 뒤, 다음 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하고 종자 자급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석문면에 있는 '당진시 스마트팜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농업인의 실습 교육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과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확인했다.

스마트팜사관학교는 충남 최대 규모인 총 2.6ha 규모로, 16명의 청년이 딸기, 열채류,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창업 부담은 낮추고, 성공 가능성은 높이는 대표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현장 견학에 참여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장들과 충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은 "당

진의 농업기술 시설은 실용성과 미래지향적 요소를 두루 갖춘 우수사례"라며 "도내 타 시군의 시설 운영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내 농업기술 분야 책임자들이 직접 우리 센터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업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나 가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스마트팜현장방문사진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사료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함께합니다.

- 원료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검사시설을 이용해 신선하고 질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원료배합으로 고효율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축종별, 사육단계별로 원료를 합리적으로 배합해 사료효율이 높은 배합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저렴한 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료를 엄가로 구입해 수입원료의 관세를 인하는 등 제품의 생산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가치와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